

“예술적 용기와 확신 안겨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호남예술제 70년

〈3〉호남예술제를 빛낸 예술가 - 우제길 화백

학창시절 다채로운 색상의 '봄' 표현 작품으로 미술 부문 입상
지속성·공공성 지닌 지역 문화예술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기대

“학창 시절 호남예술제 수상은 말 그대로 ‘용기’와 ‘확신’을 안겨준 경험이었습니니다. 누군가 제 작품에 대해 진심을 담아 평가해주고 상이라는 매개체로 격려해주는 일은 ‘예술을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과도 같은 뜻이니까요.”

우제길 화백이 학창 시절 호남예술제에 참가한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과학시간이면 교과서를 보고 인체 내부 기관을 직접 그릴 만큼 표

현하는 것에 심취해 있었다.

우 화백은 당시 대회에서 “나무와 오솔길, 돌, 새 등 풍경을 관찰하고 그리는 것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며 “풍경은 터치가 중요해 사물을 꼼꼼하게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봄의 느낌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최근 동구 윤림동 중심사 김복에 자리한 우제길 미술관에서 우 화백을 만났다. 여느 때처럼 그는 작업실에서 창작 활동 중이었다.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에 청색의 앞치마를 걸친 모습에선 청년작가의 분위기가 배어났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 “창작을 하는 한 영원한 현역이다”와 같은 말들이 환기되었다.

그는 예술제 입상은 단순한 성취를 넘어 예술에 대한 내면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사실 예술가의 길은 스스로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여정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수상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든든한 믿음이 되었고 여러 굴곡 속에서도 작업을 놓지 않게 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광주 서중과 광주사범학교를 거쳐 광주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우 화백은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최고 인기작가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개인전, 900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한국미술평론가협회가 선정한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100인에 꼽히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서울 가나아트 센터전에



우제길 화백은 호남예술제 수상은 예술에 대한 내면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한 우 화백.

서 초대 개인전을 열어 화제를 모았다.

일평생 걸여온 작가 인생의 여정에서 호남예술제는 그에게 “예술적 작가의 시작점이자 표현의 자유를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럴 만도 했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아닌 공공의 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사회적 경험’일 터였다.

이후 여러 공모전에 참여하며 수상도 하게 됐지만, 호남예술제의 기억은 늘 마음 한켠에 자양분처럼 자리했다. “특히 호남예술제가 지속성과 공공성을 지닌 무대이기에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에서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우 화백은 1968년 ‘에포크’(Epoque)라는 작가 그룹 일원이 돼 본격적인 추상작업에 몰두했다. “그 시기 최종섭, 박상섭 선배작가들과의 만남, 교류는 예술세계를 더 넓게 확장시켜 준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전까지 작업적 시도와 자신감은 호남예술제

와 같은 공공예술 무대에서 쌓은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빛과 사이 색’전을 주제로 초대전을 연 바 있다.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예술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는 1960년대 이후 초기 대표작부터 다채로운 색채가 돋보이는 2024년 신작, 아카이브 자료까지 모두 100여 점의 작품이 관객을 맞았다.

“선(線) 중에서도 직선을 가장 사랑합니다. 직선이 갖는 의미는 강직하다든지 강인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내성적인 여러 결함들 때문에 직선을 사랑하고 그 직선의 결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작가는 ‘직선’을 모티브 삼아 창작활동을 펼치는 이유를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내향적이며 정적인 작가다. 그러나 작품을 향한 열망, 창작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은 역동적이다. 내적인 에너지가 응결돼 작품에 직선으로 발산되는 것

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동네 형들이 어둠 속 무언가를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그는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반딧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빛을 잡기 위해 뛰어다녔던 그 유년의 아련한 기억은 평생 빛을 추구하는 창작의 동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언급했다.

우 화백은 현재 영암군립하정옹미술관에서 오는 18일까지 전시를 진행 중이며 우제길미술관에서도 ‘The Blooming’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펼치고 있을 만큼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작가가 붓을 언제 놓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에게 있어 작업은 곧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붓을 질 수 있는 한 계속 그릴 것입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표현하고 싶은 것이 남아 있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늘 저를 살아있게 하니까요.”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2-Layer-A-11E



국립남도국악원 야외공연장 달빛마당에서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어린이날 특별공연 ‘윌니버스 인형극’이 펼쳐진다. 전통 인형극 단체 ‘연희공방 음마갱쟁’이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인형들의 재치있는 몸짓... ‘어린이날’ 전통놀이 한마당

국립남도국악원 윌니버스 인형극, ‘연희공방 음마갱쟁’ 출연

춤추고 줄타고, 사물놀이까지! 인형들이 신명나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오후 3시와 5시, 야외공연장 달빛마당에서 2025 어린이날 특별공연 ‘윌니버스 인형극’을 선보인다. 무료.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따뜻한 윌니버스 형식의 인형극이다.

예인들의 손끝에서 살아난 인형들이 줄을 타고, 버나를 돌리고, 사물놀이를 연주하고,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춘다. 마치 살아 있는 듯 움직이는

인형들의 재치 넘치는 몸짓은 아이들에게 눈과 귀를 사로잡는 신기한 마법 같은 순간을, 어른들에게 잊고 있던 웃음과 동심을 되살리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하는 ‘연희공방 음마갱쟁’은 한국 전통 인형극의 복원과 재현을 목표로 창단된 단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의 달미(인형극) 종목 이수자와 전수자들이 모여 활동 중이다. 전통적인 소재와 양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인형 제작과 연출을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오후 5시 공연이 끝난 뒤에는 출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이 마련된다. 공연의 여운을 이어줄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인형극과 어울리는 탈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떡 메치기, 풍선아트, 비눗방울 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또한 현장에는 추로스, 솜사탕, 슬러시, 커피차 등 간단한 먹거리도 준비돼 있다. 다만 먹거리는 수량이 한정돼 있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 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흥겨운 전통 공연을 마음껏 즐기고,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가 왔다! 문화기관협의회가 함께 한다!’

16개 기관 ‘2025 광주 방문의 해’ 기념 릴레이 이벤트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소속 16개 기관이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기념해 릴레이 이벤트를 시작했다.

‘광주가 왔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가 함께 한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이벤트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기념해 홍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방식은 ‘방문의 해’ 슬로건 판넬에 16개 기관장이 ‘응원 문구’를 적고, 찍은 사진을 기관별 sns에 게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릴레이 이벤트는 마감없이 진행되며 문구는 기관별 sns에서 볼 수 있다.

이벤트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간사기관인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을 시작으로 광주관광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예술의전당, 광주비엔날레 등 순서에 상관없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장이 ‘광주방문의 해’를 기념해 작성한 ‘응원 문구’는 다음과 같다. “오세요! 광주로-예술의 도시”(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노희용), “인자 여러분 차례구만. 광주로 오랑께!”(광주관광공사 사장 김진강), “아시아 최고 예

술기관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꼭 오세요”(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김상욱) 등이다.

올해 협의회는 ‘광주방문의 해’를 기념한 연계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광주문화기관 문화주간’을 계획하고 있다. 기관별 유료 행사 대상 ‘티켓 할인’ 혜택 검토와 아울러 지역의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디아마이광주’를 활용해 해당 행사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노희용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이벤트는 올해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방문객들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각 기관들의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응원 문구 등이 홍보에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3년도에 7개 기관으로 출범한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현재 16개 기관이 소속돼 있다. 지역 문화예술기관이 회원기관으로 소속돼 매년 상·하반기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